

‘선관책진’ 읽고 행자 때부터 장좌불와 평생 이어가



남영은 해인사 일주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절 규모가 백양사보다 훨씬 더 컸다. 일주문이나 가람들의 크기도 웅장했다. 그러나 위압감을 들지 않았다. 공사는 기암들은 고향집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남영은 단장이 퇴색한 종무소로 바로 갔다. 종무소에는 이십대의 처사와 행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처사는 의자에 앉아 있고, 어린 행자는 작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는 중이었다. 처사가 남영을 보더니 책상의 서류를 밀치면서 물었다.

“무슨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출가하려고 왔습니다.”

남영의 말에 처사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청소하던 어린 행자도 비질을 멈추었다. 남영은 자신의 방처럼 불쭙 들어가 보조의자에 앉았다. 처사가 말했다.

“주지스님께 말씀해보겠습니다.”

“그럴 것 있습니까. 제가 주지스님을 찾아가 뵈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출타 중인데 곧 오실 겁니다.”

어린 행자가 비질을 하면서 말했다.

“반갑습니다. 해인사에는 저 말고도 행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남영은 행자가 여러 명이라는 말에 안도했다. 수시로 행자를 받고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처사가 조건을 달았다.

“주지스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주지스님께서 까다롭게 심사해서 받아들여도 한밤에 도망치는 행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마디로 행자생활이 고되니까 그런다 아닙니까?”

보살 신도 두 명이 종무소로 들어오자 처사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남영은 종무소를 나와 해인사 경내를 돌아다녔다. 팔만대장경을 보관된 장경각까지 올라갔다. 종무소로 내려오자 샷을 쓴 한 스님이 왔다. 한눈에 주지스님 같은 느낌이 들어 남영은 다가와 합장했다. 종무소에 있던 처사와 어린 행자도 뛰어나와 ‘주지스님 오십니까?’ 하고 인사했다. 남영은 용건을 말했다.

“주지스님, 출가하려고 왔습니다.”

“다른 절로 가보게.”

주지는 남영의 결모습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하이칼라 머리에 흰 양복을 입고 있는 남영의 행색이 생

긴기도 했다. 공양간 행자들은 자신들의 일손을 거들어주니 남영을 반겼다. 남영은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공양간 행자들과 똑같이 행동했다.

그러나 공사를 벌일 때마다 남영은 퇴짜를 맞았다. 4월 초순(음력 3월 1일)에 해인사로 온 이후 세 번이나 출가를 거절당했다. 그럴수록 남영은 도둑을 마음을 더욱 굳혔다. 자신이 정해 놓은 길을 가는데 누구도 막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남영은 격정은 커녕 천연덕스럽게 공양간 행자처럼 생활했다. 주지는 받아주지 않았지만 자신은 이미 해인사 행자라고 여겼다. 다만 주지에게 허락받지 못했으므로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공양간에서 한 끼만 했고, 잠은 나무청이나 공양간 같은 찬 데서 잠깐 잤다.

3일째 되는 날이었다. 면적이 있는 단아한 스님이 보였다. 일본 교토의 임제종 절에서 빈 적이 있는 서용이었다. 남영은 스님에게 달려가 합장했다. 서용은 양복 차림의 남영을 곧 알아보고는 놀랐다.

“무슨 일인가. 해인사에 있나니.”

“스님, 도둑으려고 왔습니다.”

“그런가. 퇴설당에 계시는 인곡(麟谷) 스님을 소개시켜 주겠네.”

남영은 바로 서용을 따라 퇴설당으로 올라갔다. 서용은 자신이 일본에서 남영에게 <금강경>을 주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남영을 소개했다. 그러자 인곡이 남영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육신이 태어난 고향을 묻는 말이 아니었다.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나기 이전의 고향, 본래자리(面目)를 묻는 말이었다. 남영은 <선관책진>을 보고 느낀 대로 대답했다. 선사들의 방식대로 크게 고향을 쳤다.

“아악!”

인곡은 남영이 선사 흉내를 낸다고 여겼는지 다시 미끼를 던졌다.

“네 고향이 어디인가?”

이번에도 남영은 속지 않았다. 인곡 스님이 묻는 의도를 알고는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킁꿉 쳤다. 그러자 인곡이 다시 물었다.

“우리 집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이웃집 말이 배탈이 났다. 천하의 명의를 불러서 말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아랫집 돼지의 넓적다리에 똥을 똥다. 이



그림 · 최문정

고, 절에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3월 5일 7 일이면 견성한다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일주일이면 깨치지 못할 것이 있겠나 하고 입지를 세웠어요. 화두는 효봉 스님한테 따졌지.

해암은 공양주 소임을 보면서 조실스님인 효봉에게 ‘무(無)자(字) 화두를 받았다. 아직은 행자 신분이었으므로 해암은 공양간을 선방 삼아 정진했다. 불구(佛具)를 닦을 때나, 밥을 지을 때나 늘 화두를 들었다.

가야산의 독한 모기들이 달려드는 여름철을 한결 같이 밤새워 장좌불와를 하고 혼자서 참선하니 해인사 대중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문수 관세음보살 화신이 나타나 가야총림을 도우려 왔다.”

주지도 공양주 해암을 신뢰해 이제는 쌀 곳간의 열쇠를 간수하는 미감(米監)의 일까지 맡겼다.

“밥도 잘 짓고 양도 잘 맞추니 앞으로는 쌀 창고 열쇠를 그대가 가지고 있게.”

그러나 공양주 해암은 주지의 칭찬을 한 귀로 흘렸다. 오직 화두를 타파해 득도(得道)할 생각뿐이었다. 가마솥에서 큰 주걱으로 밥을 풀 때 ‘나는 도둑이 왔는데 난 스님들 공양 준비만 해준다 시간을 다 흘려보내는구나’ 하고 아쉬워했다.

마침내 해암은 아침공양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효봉의 상좌가 되기로 한 행자에게 부탁했다.

“행자님, 내 배가 아프니 오늘 아침만 내 일을 좀 해주시오.”

“걱정 마시오. 어서 가 쉬어요.”

공양주 해암은 행자에게 밥주걱을 넘겨주고는 백련암 뒤 환적대로 향했다. 백련암 뒷산에 환적 선사가 깨웠던 환적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해암은 유서 비슷한 글을 써 품에 넣었다.

“일주일 안에 도를 깨치지 못하면 죽어도 좋다.”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암자가 백련암이었다. 해암은 한 걸음에 백련암까지는 갔으나 암자 뒤에 있다는 환적굴은 찾지 못했다. 할 수 없이 그 부근에서 굴을 하나 발견해 그곳으로 동면하는 짐승처럼 들어갔다.

해암은 산속에서 돌맹이 입급 개를 구한 뒤 가부좌를 틀었다. 하루가 지나면 돌맹이 하나를 옆으로 옮겨 수행한 날짜를 헤아리기 위해서였다. 공양거리는 아무 것도 없었다. 계곡으로 흐르는 물도 단 한 방울 마시지 않았다. 칠일 단식정진이였다.

한편, 해인사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양주 해암이 배가 아프다며 한 행자에게 밥주걱을 넘겨준 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대중들이 해암을 찾으려 해인사 뒷산인 가야산을 헤맸다. 그러나 해암은 첫 날도 둘째 날도 굴에서 나오지 않았다. 화두가 성성하게 잘 들러 일주일이면 오매불망 그러던 도인이 될 것 같았던 것이다.

실제로 다섯째 되는 날까지도 해암은 화두와 하나가 됐다.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이 문제였다. 귀속이 갑자기 바글바글 울리고, 손발의 마디마디가 뻗뻗해졌다. 손가락이 굵은 것 같아 돌맹이를 들어 옮기기가 조차 힘들었다. 얼굴은 산모기가 물어뜯어 훑이 오른 사람처럼 불긋불긋 했다. 화두를 의심하는 망상도 나타나 방해를 놓았다.

‘화두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큰일

이다.’

결국 해암은 엿새를 넘기지 못하고는 굴을 나왔다. 해인사로 맥없이 내려오자 효봉은 해암을 불러 놓고 야단을 쳤다.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되느냐!”

“죄송합니다.”

그러나 효봉은 마음속으로 흐뭇해했다. 출가를 허락한 인곡도 마친가지였다. 대중의 밥을 푸다가 대분심(大分心)이 일어나 칠일 단식정진에 들어간 공양주 해암이 대견하기만 했던 것이다.

마침내 공양주 해암은 가을에 인곡을 은사로, 효봉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범명은 성관(性觀)이었다. 가야산에 단풍이 불리기 시작한 10월 15일(음력)의 일이었다.

<계속>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받아
범명은 성관

세 번이나 출가 거절 당하고도 공양간서 먹고 자며 공양주 생활해 밥 푸다 대분심 일으켜 칠일 단식정진 들어가

경했던 것이다. 주지는 남영을 따돌리려고 그러는지 종무소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주지채로 가려 했다. 남영이 합장하며 사정했다.

“주지스님,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중노릇할 위인이 못되는 것 같네.”

“받아만 주십시오.”

“해 떨어지기 전에 떠나시게.”

그래도 남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간 버텨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겠다고 생각했다. 남영은 어린 행자를 따라 공양간으로 갔다. 행자가 남영을 위로했다.

“오늘은 공양간에서 자시지. 주지스님께서 마음을 돌려실지 모르니.”

남영은 오히려 어린 행자를 다독였다.

“내 일에 신경 쓰지 마요. 주지스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지는 그날 밤 남영이 해인사를 떠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소임을 보는 스님들과 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공사의 결론은 ‘중노릇 할 사람이 아니다’였다. 어린 행자에게 공사의 결론을 전해들은 남영은 그래도 는 하나 꺾쩍 하지 않았다.

다음날부터 부엌데기처럼 가야산 골짜기로 나무를 하러 가기도 하고, 방사에 불을 때고, 밥하며 물을

이지를 알겠느냐.”

남영은 주먹을 앞으로 불쭙 내밀었다. 그제야 인곡이 미소를 지으며 남영의 머리를 만졌다. 세상의 유무정물이 연기(緣起)로 얽혀 있는 이치를 아느냐고 묻는 인곡 스님의 질문에 남영은 그것들은 결국 한 몸이라고 주먹을 내밀어 답했던 것이다.

이후 남영은 정식으로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장좌불와를 시작했다. 장좌불와란 하루 종일 단 한 순간도 눕지 않고 정진하는 두터행 중에서 가장 지켜나가기 어려운 수행을 말했다. 하루 한 끼만 공양하는 오후불식(午後不食)의 수행도 이어갔다.

훗날 장좌불와를 평생 동안 해 유명해진 스님은 행자 때부터 장좌불와를 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는데, 출가 전에 이미 결심했던 것이 분명하다.

“내가 평생을 장좌불와 한다고 말하면 상(相)을 내서 자랑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거북해요. 허나 평생을 장좌불와 해왔으니 사실인즉 맞습니다. 요새도 자유자재로 하고 있어요. 장좌불와 하게 된 동기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선관책진>이란 책을 읽다가 장좌불와 하는 내용을 보았어요. 그때 나도 장좌불와 해야겠다고 다짐했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들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청산에 맑은 물은 원래 예전과 같고 명월 청풍은 같은 한 집이네. 눈 녹은 태산에 봄바람 부니 두견새 우는 곳에 두견화가 피었다.
- 해암대종사 법어

정진안내

- **철야 용맹 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여름 : 음력 7월 1일 ~ 8일
겨울 : 음력 12월 1일 ~ 8일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함안군 가야면 치린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